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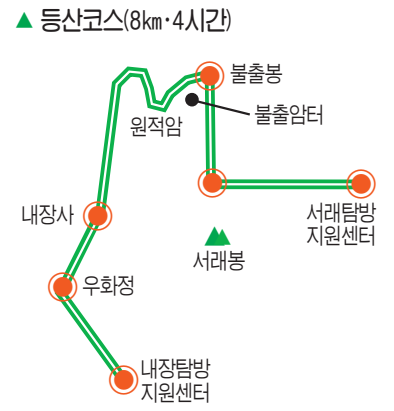


(주)밀레-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6차 산행에 참가한 등산 애호가들이 내장산 서래봉에서 불출봉으로 이어지는 비위능선을 산행하고 있다. 1km에 걸쳐 이어지는 바위 절벽이 하나의 봉우리를 이룬 서래봉 구간은 색동옷으로 같이입는 내장산의 참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붉디붉은 가을 절정서 세상 잊고 나를 만나다



## 〈6〉 내장산 국립공원



푸르른 하늘은 더욱 높아지고, 온산이 붉게 변하는 가을 한복판이다.

단풍은 나뭇잎 속의 엽록소가 분해되고 새로 '안토시아닌'(anthocyanin)이 생성되며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 이맘때 겨울을 대비하는 노랑고, 붉은 자연의 빛깔은 더없이 화려하고, 곱기만 하다.

〈주〉밀레-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6번째 행선지는 단풍으로 널리 알려진 정읍 내장산이다. 지난 26일 진행된 산행에는 만산홍엽(滿山紅葉)의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전남·북 지역 750여 명의 등산 애호가들이 참여했다. 익산에서 온 한 주부는 태교를 위해 산행에 동참했다고 밝히 눈길을 끌었다.

◇'호남의 금강' 내장산 국립공원은 지난 19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내장산은 지리산·월출산·천관산·능가산과 함께 '호남의 5대 명산'으로 꼽는다. 본래 영은산이라고 불리었으나 '산안(內)에 숨겨진 것(藏)이 무공무진하다'해 내장산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전해진다.

엄홍길 대장은 산행에 앞서 "날씨가 너무 화창해 산신령이 보살펴 주는 것 같다. 아름다운 계절에 단풍을 보며 기쁘게 산행하고, 좋은 산기운을 받아가시라"고 말했다.

◇단풍나무 10여종 대체로 위=불출봉에서 5분여를 내려서면 불출암터가 나온다. 고려 광종 26년(975년)에 하월선사가 암벽에 형성된 천연동굴을 이용해 암자를 세웠으나 한국전쟁때 불타버리고 흔적만 남아있다.

원적암 부근 아름드리 비자나무 군락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붉디붉은 단풍과 접하게 된다. 단풍은 자연스럽게 등산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단풍을 담기에 바빠 시간가는 줄 모르기 때문이다. 단풍은 눈부신 태양을 마주한 역광 속에서 더욱 붉은 빛깔을 띤다.

'춘백양 추내장'(春百羊 秋內藏)이란 말처럼 가을 내장산은 10여 종에 달하는 단풍나무 수종 덕분에 다른 산 단풍보다 색깔이 다양하고 무척이나 아름답다. 산행객들이 입은 형형색색의 등산복과 단풍이 잘 어우러지는 것도 색다른 모습이다.

내장산 단풍의 백미는 내장사 앞부터 일주문까지 이어지는 단풍 터널이다. 백팔번뇌를 잊기 위해 절 앞에 심었다는 108그루의 단풍나무들이 이제는 대표적인 가을명소가 되었다. 아직 단풍터널은 절정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다.

내장사에서 입구 삼가까지 1시간여 동안 진입도로와 나란히 조성된 탐방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라. 어느 인공적인 색깔이 흉내낼 수 없는 무명함 자연의 빛깔을 음미해보라. 행락객으로 북적이는 분위기에서도 세속적인 온갖 시름 등 각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도종환 시인은 '단풍드는 날'이라는 시에서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타다/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정하면서/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고 묘사했다.

서래 탐방지원센터에서 내장사 삼가 입구까지는 8km 거리로, 단풍을 즐기다 보면 4~5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스마트폰용 '밀레 트레킹'(MTrekking) 어플을 이용하면 자신이 걸은 산행 코스의 거리와 경과시간이 지도상에 표시되고, 소요된 칼로리(kcal)도 참조할 수 있다. 등산뿐만 아니라 하이킹, 걷기, 탐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밀레 산행에 4차례 참여했다는 송인숙(57·광주광역시) 씨는 "산에 오를 때는 너무 힘들지만, 막상 산행을 마치고 나면 다음 산행이 기다려지곤 한다"며 등산 예찬론을 펼쳤다.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 김종철 소장은 "올해는 강수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 단풍이 예년보다 더 곱고 화려하다. 3~4년만에 최고다"면서 "내장산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에, 단풍터널은 다음 주에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최적의 단풍 명소 코스로 ▲공원 입구~내장사간 단풍 나무길(3.2km·소요시간 1시간) ▲탐방안내소~원적암~벽련암~탐방안내소 간 자연관찰로 코스(3.8km·2시간 소요) ▲탐방안내소~벽련암~서래봉~불출봉~탐방안내소간 서래봉 코스(5.9km·3시간 소요)를 추천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TRUE PRODUCTS, REAL PEOPLE

MILLET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 108그루 단풍터널 지나

## 오색 가을 수채화 만끽

## 4시간 황홀한 산행길

이번 산행코스는 내장 저수지 옆 서래봉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 능선을 오른 후 불출봉을 거쳐 내장사로 하산해 삼가 입구 내장 탐방지원센터까지 8km 구간이다.

한참 구슬땀을 흘리며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고 있을 때 고흥 우주센터에서 '나로호' 3차발사가 연기됐다는 아쉬운 소식이 전해졌다. IT(정보통신)시대에 걸맞게 뉴스조차 빛의 속도로 산중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전달된 것이다.

출발지점에서 서래봉 능선까지는 1시간여 거리. 능선길 900여m 지점에서 서래봉과 불출봉으로 가는 길이 갈라진다. 오른쪽 길로 접어들어 능선에 올라서면 울긋불긋 한창 색동옷으로 같이입고 있는 내장산의 진면목이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내장산 9봉 중 가장 경치가 뛰어나다고 하는 서래봉(西來峰) 명칭 유래는 서역(西域)에서 온 달마대사가 내장산에서 입산수도했다해서 붙였다는 설과 연이은 바위봉우리가 마치 농기구 씨레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명명됐다는 설이 있다.

서래봉(624m)에서 불출봉(622.2m)으로 이어지는 능선길은 온통 바위길이다. 철제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큼직한 바위를 우회해야 하지만 건너편 까치봉, 신선봉, 연자봉 자락마다 수채화와 같이 번지는 붉은 가을빛깔을 완상(玩賞)하고, 만끽하는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힘내"  
"당신이 좋아"  
"잘 될 거야"  
라는 말 대신  
산에 가자고 했습니다

진심을 만나다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밀레-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산행 출발전 엄홍길 대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행사 참가자들.